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10 주차 (6:1~6:46)

(2015년 3월 29일 - 2015년 4월 4일)

(제3권 10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10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3 월 29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5) (주입)

오늘의 본문 (요6:1~15)

1.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3.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삽나이까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에게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오천쯤 되더라
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12.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 두 바구니에 찼더라
14.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이 일이 있은 후 (Μετὰ ταῦτα)
예수님이 갈릴리, 즉,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ἀπῆλθεν ὁ Ἰησοῦς πέραν τῆς θαλάσσης τῆς Γαλιλαίας τῆς Τιβεριάδος.)
- (2절)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ἦκολούθει δὲ αὐτῷ ὄχλος πολὺς.)
왜냐하면 그가 환자들에게 행하는 일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εἰθεώρουν τὰ σημεῖα ἃ ἐποίει ἐπὶ τῶν ἀσθενούντων.)
- (3절) 예수께서 산에 올랐습니다 (ἀνῆλθεν δὲ εἰς τὸ ὄρος Ἰησοῦς)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καὶ ἐκεῖ ἐκάθητο μετὰ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 (4절) 유대인의 축제일인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ἦν δὲ ἐγγὺς τὸ πάσχα, ἡ ἑορτὴ τῶν Ἰουδαίων.)
- (5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Ἐπάρας οὖν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ὁ Ἰησοῦς καὶ θεασάμενος ὅτι πολὺς ὄχλος ἔρχεται πρὸς αὐτὸν)

-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πρὸς Φίλιππον·)
 그들에게 먹일 빵을 어디서 살 것인가? (πόθεν ἀγοράσωμεν ἄρτους ἵνα φάγωσιν οὗτοι·)
- (6절) 그가 그를 시험하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τοῦτο δὲ ἔλεγεν πειράζων αὐτόν·)
 그가 친히 행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αὐτὸς γὰρ ᾔδει τί ἔμελλεν ποιεῖν·)
- (7절)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ῷ [ὁ] Φίλιππος·)
 각각 조금씩만 받아도 이백 데나리온의 빵이 모자랄 것입니다
 (διακοσίων δηναρίων ἄρτοι οὐκ ἀρκοῦσιν αὐτοῖς ἵνα ἕκαστος βραχὺ [τι] λάβῃ·)
- (8절)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εἷς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Ἀνδρέας ὁ ἀδελφὸς Σίμωνος Πέτρου·)
- (9절) 여기에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ἔστιν παιδάριον ᾧδε ὃς ἔχει πέντε ἄρτους κριθίνους καὶ δύο ὀψάρια·)
 그러나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겠습니까? (ἀλλὰ ταῦτα τί ἐστὶν εἰς τοσούτους·)
- (10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ὁ Ἰησοῦς·)
 그 사람들을 앉도록 하라 (ποιήσατε τοὺς ἀνθρώπους ἀναπεσεῖν·)
 그곳에는 잔디가 많았습니다 (ἦν δὲ χόρτος πολὺς ἐν τῷ τόπῳ·)
 그래서 오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앉았습니다 (ἀνέπεσαν οὖν οἱ ἄνδρες τὸν ἀριθμὸν)
 그들이 앉게 되었을 때 (ὡς πεντακισχίλιοι)
- (11절) 예수님이 그 빵 덩어리를 잡으셨습니다 (ἔλαβεν οὖν τοὺς ἄρτους ὁ Ἰησοῦς)
 그리고 축사를 하신 후에 (καὶ εὐχαριστήσας)
 그곳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διέδωκεν τοῖς ἀνακειμένοις)
 그리고 물고기로부터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습니다] (ὁμοίως καὶ ἐκ τῶν ὀψαρίων ὅσον ἤθελον·)
- (12절) 그리고 그들이 만족하게 되었을 때 (ὡς δὲ ἐνεπλήσθησαν·)
 그가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버리는 것이 없도록 넘치는 조각들을 모으라
 (συναγάγετε τὰ περισσεύσαντα κλάσματα, ἵνα μὴ τι ἀπόληται·)
- (13절)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을] 모았습니다 (συνήγαγον οὖν)
 그것들은 다섯 개의 보리 빵 조각들로부터 열두 광주리를 채웠습니다
 (καὶ ἐγένεσαν δώδεκα κορῖνοι κλασμάτων ἐκ τῶν πέντε ἄρτων τῶν κριθίνων)
 그것은 그것을 먹은 사람들에게 넘쳤던 것입니다 (ἃ ἐπερίσσευσαν τοῖς βεβρωκόσιν·)
- (14절) 그런데 그가 행한 표적을 그사람들이 보았을 때 (Οἱ οὖν ἄνθρωποι ἰδόντες ὃ ἐποίησεν σημεῖον)
 그들이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이분은 진실로 이 땅으로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ὅτι οὗτός ἐστιν ἀληθῶς ὁ προφήτης ὁ ἐρχόμενος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 (1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곧 그에게 와서 그를 잡으려는 것을 깨달으셨을 때
 (Ἰησοῦς οὖν γνοὺς ὅτι μέλλουσιν ἔρχεσθαι καὶ ἀρπάζειν αὐτὸν ἵνα ποιήσωσιν βασιλέα·)
 그 자신이 홀로 다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ἀνεχώρησεν πάλιν εἰς τὸ ὄρος αὐτὸς μόνο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0절을 읽으십시오. 안드레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사람들을 앉도록 만들어라.” 여기서 앉게 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취하는 자세

로 비스듬히 눕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누운 사람들의 숫자는 남자들만 오천 명에 달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를 따라 산으로 올라 온 것입니다.

11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축사를 하시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다고 표현하였는데 이 단어는 ‘유카리스테사스’(εὐχαριστήσας)로 동사 ‘유카리스테오’(εὐχαριστέω)의 분사형입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말하고 심지어 이런 감사의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축사를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행위는 단순히 감사기도를 올리는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는 그 어원이 성만찬을 의미하는 ‘유카리스트’(Eucharist)와 같은데 이는 ‘교회’ 나아가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성만찬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행한 최후의 만찬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행사의 백미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행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30절에는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그 만찬의 의미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2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²⁶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²⁷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²⁸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6-28).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성만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23~2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²³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²⁴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²⁵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²⁶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²⁷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²⁸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²⁹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전 11:23-29).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그 떡은 더 이상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다섯 개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교회의 성만찬을 예수님이 미리 직접 시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에 이 일로 인해 불거진 논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시면서 (6:35, 48, 51), 그 살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6:53-55)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초능력을 보여준 기적의 사건이 아닌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13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들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열도 아니고 열 다섯도 아니고 열두 광주리였을까요?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한 목소리로 동의하는 것이 열두지파 즉,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즉,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14~15절을 읽으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여깁니다. 예수님 보여 주신 그 표적이 그 증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할 줄 미리 아셨기에 그들을 피해 숨으셨습니다. 떡을 먹은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맞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그들의 바램처럼 이 세상의 왕이 될 분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은 아닌지요? 오늘 하루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당신은 왜 그리스도를 믿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나다 두려워 말아라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 6:16~21)

16.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 하셨더니
18.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9.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 하거늘
20.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21.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원문해석하기

- (16절) 저녁이 되었을 때 그의 제자들이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Ὡς δὲ ὀψία ἐγένετο κατέβησα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ἐπὶ τὴν θάλασσαν)
- (17절) 한 배에 올라탄 후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καὶ ἐμβάντες εἰς πλοῖον ἤρχοντο πέραν τῆς θαλάσσης εἰς Καφαρναούμ.)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καὶ σκοτία ἤδη ἐγγίνοι καὶ οὐπω ἐληλύθει πρὸς αὐτοὺς ὁ Ἰησοῦς)
- (18절) 큰 바람이 불어 왔고 바다는 매우 요동쳤습니다
(ἢ τε θάλασσα ἀνέμου μεγάλου πνέοντος διεγείρετο.)
- (19절) 그런데 25 스타디아에서 30십 스타디아 (약 4.5km ~ 5.5km) 쯤 나갔을 때
(Ἐλληλακότες οὖν ὡς σταδίου εἴκοσι πέντε ἢ τριάκοντα)
그들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 배에 가까와 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θεωροῦσιν τὸν Ἰησοῦν περιπατοῦντα ἐπὶ τῆς θαλάσσης καὶ ἐγγὺς τοῦ πλοίου γινόμενον.)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καὶ ἐροβήθησαν.)
- (20절)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ὁ δὲ λέγει αὐτοῖς·)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ἐγὼ εἰμὶ· μὴ φοβεῖσθε.)
- (21절) 그들이 기꺼이 그를 배로 모셨습니다 (ἤθελον οὖν λαβεῖν αὐτὸν εἰς τὸ πλοῖον.)
그리고 즉시 그 배가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καὶ εὐθέως ἐγένετο τὸ πλοῖον ἐπὶ τῆς γῆς εἰς ἣν ὑπῆγο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오늘 살펴 볼 말씀은 예수님이 물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외에 나머지 세 공관 복음(마태, 마가, 누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기록은 다른 공관 복음의 기록과는 달리 읽는 이에 따라서 매우 어색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봐 왔듯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신 후에 그 이적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을 뒤에 가서 논쟁을 통해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는 훨씬 뒤에 있는 요 6:27~58 사이의 기록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셈이지요. 따라서 오늘의 본문인 예수님이 물위를 걸은 사건도 이 사건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내고 있는가를 찾아 보아야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요한복음 6장 전체의 구조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한복음 주석가 D.A Carson 은 그의 책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PNTC)에서 요한복음 6장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 A: 오병이어의 기적 (6:1~15)
 - B: 물위를 걸으심 (6:16~21)
 - C: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음 (6:22~26)
- A': 생명의 떡 (6:27~59)
 - B': 남는 자와 떠나는 자 (6:60~71)

[이에 대해 또 다른 신학자인 Morris 는 6:22~71 절까지를 ‘생명의 떡’에 대한 기록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한 것으로 보는 한편, 7장의 가르침을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D.A Carson 의 견해가 좀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이 책에서는 그가 제시한 구조를 토대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16~17 절을 읽으십시오.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배를 탔을 때에는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 이 부분은 도입 부분이자 사건의 발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간상으로는 저녁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시간은 지나고 어둠이 찾아 왔습니다. 히브리어로 낮을 ‘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욘’은 주로 빛이 있는 밝은 대낮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빛이 없는 시간은 ‘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조를 설명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하루 일과는 모두 끝나고 더 이상 빛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지요. 다음 날 동이 틀때까지, 즉, 새로운 날이 올 때까지 사람들은 활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의 의미, 낮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요 11:9-10).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날은 이미 저물었고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나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두운 밤에 예수님도 없이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가 종종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나고 제자들만 남아 어두운 세상을 헤쳐가야 하는 상황인 셈이지요. 이를 좀더 확대 해석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 제자들이 처한 두려운 상황 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18 절을 읽으십시오. 그들이 칠흙같은 어두운 밤에 갈릴리 바다를 노저어 가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들이 처한 현실을 “바람이 거스르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말하고 있고(막 8:48), 마태복음은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마 14:24). 이들은 거친 파도와 힘든 싸움을 싸웠고 그들의 고난은 극에 달해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실제로 교회가 당할 엄청난 핍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예수님은 이 날 밤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어지는 이 사건에 관해 해석하고 있는 요한복음 6:60-71 을 읽어 보면 이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진리를 지닌 자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교회가 환란과 핍박을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못 견디고 믿음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들이 환란을 못 견디는 이유는 그들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³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약 1:2-3).

당신은 믿음을 시험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그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당신의 경험을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19~21 절을 읽으십시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걸어오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였고 배는 이내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파도와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예기치 않은 시점에 도저히 올 수 없는 그곳으로 제자들에게 찾아 오셨습니다. 이를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과 일맥 상통합니다. 당신은 이 말씀이 종말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 6:22~36)

22.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5.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28.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0.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니 무엇이니이까
31.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원문해석하기

(22절) 다음날 (Τῆς ἐπαύριον)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들이 오직 한 척의 배만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ὁ ὄχλος ὁ ἑστηκὼς πέραν τῆς θαλάσσης εἶδον ὅτι πλοῖον ἄλλο οὐκ ἦν ἐκεῖ εἰ μὴ ἓν)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지 않고 그의 제자들만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καὶ ὅτι οὐ συνεισῆλθεν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ὁ Ἰησοῦς εἰς τὸ πλοῖον ἀλλὰ μόνοι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ἀπῆλθον·)

(23절) 그러나 다른 배들이 예수님의 축사 후에 빵을 먹던 곳에서 가까운 티베리아로부터 왔습니다

(ἄλλα ἦλθεν πλοῖα ἐκ Τιβεριάδος ἐγγὺς τοῦ τόπου ὅπου ἔραγον τὸν ἄρτον εὐχαριστήσαντος τοῦ κυρίου.)

(24절) 무리들이 예수님도 없고 그의 제자들도 거기에 없음을 알았을 때

(ὅτε οὖν εἶδεν ὁ ὄχλος ὅτι Ἰησοῦς οὐκ ἔστιν ἐκεῖ οὐδὲ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작은 배들에 올라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ἐνέβησαν αὐτοὶ εἰς τὰ πλοιάρια καὶ ἦλθον εἰς Καφαρναούμ ζητοῦντες τὸν Ἰησοῦν.)
- (25절) 바다 건너 편에서 그들이 그를 발견하자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εὐρόντες αὐτὸν πέραν τῆς θαλάσσης εἶπον αὐτῷ·)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ῥαββί, πότε ὦδε γέγονας.)
-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당신들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지 않습니다 (ζητεῖτέ με οὐχ ὅτι εἶδετε σημεῖα)
오히려 그 빵을 먹고 만족하였기 때문입니다 (ἀλλ' ὅτι ἐφάγετε ἐκ τῶν ἄρτων καὶ ἐχορτάσθητε.)
- (27절) 당신들은 망해 사라져 버릴 음식을 예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남아 있는 음식을 예비하십시오.
(ἐργάζεσθε μὴ τὴν βρωσὴν τὴν ἀπολλυμένην ἀλλὰ τὴν βρωσὴν τὴν μένουσαν εἰς ζωὴν αἰώνιον.)
그것은 인자가 당신들에게 줄 것입니다 (ἦν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ὑμῖν δώσει·)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치셨습니다 (τοῦτον γὰρ ὁ πατήρ ἐσφράγισεν ὁ θεός.)
- (28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πρὸς αὐτόν·)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τί ποιῶμεν ἵνα ἐργαζώμεθα τὰ ἔργα τοῦ θεοῦ;)
-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ὁ]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τοῦτό ἐστιν τὸ ἔργον τοῦ θεοῦ),
그 결과 당신들은 그(하나님)가 보내신 그를 믿습니다 (ἵνα πιστεύητε εἰς ὃν ἀπέσταλεν ἐκεῖνος.)
- (30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αὐτῷ·)
우리들이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τί οὖν ποιεῖς σὺ σημεῖον, ἵνα ἴδωμεν καὶ πιστεύσωμέν σοι;)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τί ἐργάζῃ;)
- (31절)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οἱ πατέρες ἡμῶν τὸ μάννα ἔφαγον ἐν τῇ ἐρήμῳ),
기록되었으되 (καθὼς ἐστιν γεγραμμένον·)
하늘로부터 온 빵을 먹도록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ἄρτο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φαγεῖν.)
- (32절)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하늘로부터 온 그 빵을 준 분은 모세가 아닙니다 (οὐ Μωϋσῆς δέδωκεν ὑμῖν τὸν ἄρτο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의 빵(그 진리, 그 빵)을 당신들에게 줍니다
(ἀλλ' ὁ πατήρ μου δίδωσιν ὑμῖν τὸν ἄρτο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τὸν ἀληθινόν·)
- (33절) 하나님의 그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ὁ γὰρ ἄρτος τοῦ θεοῦ ἐστιν ὁ καταβαίνω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ὶ ζωὴν διδούς τῷ κόσμῳ.)
- (34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πρὸς αὐτόν·)
주여! 그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κύριε, πάντοτε δός ἡμῖν τὸν ἄρτον τοῦτον.)
-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나는 생명의 빵입니다 (ἐγὼ εἰμι ὁ ἄρτος τῆς ζωῆς·)
나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ὁ ἐρχόμενος πρὸς ἐμὲ οὐ μὴ πεινάσῃ),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καὶ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ὲ οὐ μὴ διψήσει πώποτε.)
- (36절)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λλ' εἶπον ὑμῖν)
당신들은 나를 보았고 믿지 않았습니까 (ὅτι καὶ ἐώρακατέ [με] καὶ οὐ πιστεύετ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떡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배도 없이 갈릴리 이편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보여 준 그 표적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22절을 읽으십시오. “이튿날 바다 건너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배 한 척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라고 전날 저녁에 있었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바다 건너 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전날 밤의 상황을 목격했고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행보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22절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행방이 묘연해진 예수님을 애타게 찾아 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행방을 찾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15절에서 예수님이 자리를 먼저 피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 하는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예수님의 행방을 계속해서 찾은 이유는 이런 생각 외에도 예수님께 더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가버나움으로 찾아온 이들을 향해 ‘빵을 먹고 만족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요 6:26).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주어지는 혜택, 특히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나 지금 당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나요? 완전히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며 동행하는 분인 동시에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지극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면 그 상급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없나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각자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동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3-24절을 읽으십시오. 23절은 “그러나 다른 배들이 예수님의 축사 후에 빵을 먹던 곳에서 가까운 티베리아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ἀλλά 알라)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들이 있었는데 그 배들은 티베리아로부터 온 배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자인 요한이 이 사실이 어떤 의미이며 얼마나 중요하길래 굳이 이렇게 써 놓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만 앞뒤 정황을 볼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요한도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부분을 삽입하여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24절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24절은 “무리들이 예수님도 없고 그의 제자들도 거기에 없음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작은 배들에 올라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배를 타지 않았으므로 전날에 떡을 주셨던 곳 근처에 계실 거라고 확신했으나 거기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이내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이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애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찾아 헤매면 목적은 전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

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세상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신앙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라 생각하시나요?

25~26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애타게 찾던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랍비여 언제부터 여기에 계셨습니까?”입니다. 이 질문에는 이곳으로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오실 수 있었습니까?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하튼 그들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에 따라 행동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수를 치십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빵을 먹고 만족하였기 때문입니다”(6:26).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표적에 주목하지 않고 표적으로 보여주신 기적같은 ‘현상’과 그 표적으로부터 자신들이 얻은 ‘혜택’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표적을 통해 진정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현실적인 문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받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지요. 당신은 어떠한가요?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 6:22~36)

22.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5.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28.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0.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니 무엇이니이까
31.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원문해석하기

(22절) 다음날 (Τῆς ἐπαύριον)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들이 오직 한 척의 배만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ὁ ὄχλος ὁ ἑστηκὼς πέραν τῆς θαλάσσης εἶδον ὅτι πλοῖον ἄλλο οὐκ ἦν ἐκεῖ εἰ μὴ ἓν)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고 그의 제자들만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καὶ ὅτι οὐ συνεισῆλθεν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ὁ Ἰησοῦς εἰς τὸ πλοῖον ἀλλὰ μόνοι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ἀπῆλθον·)

(23절) 그러나 다른 배들이 예수님의 축사 후에 빵을 먹던 곳에서 가까운 티베리아로부터 왔습니다

(ἄλλα ἦλθεν πλοῖα ἐκ Τιβεριάδος ἐγγὺς τοῦ τόπου ὅπου ἔραγον τὸν ἄρτον εὐχαριστήσαντος τοῦ κυρίου.)

(24절) 무리들이 예수님도 없고 그의 제자들도 거기에 없음을 알았을 때

(ὅτε οὖν εἶδεν ὁ ὄχλος ὅτι Ἰησοῦς οὐκ ἔστιν ἐκεῖ οὐδὲ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작은 배들에 올라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ἐνέβησαν αὐτοὶ εἰς τὰ πλοιάρια καὶ ἦλθον εἰς Καφαρναοὺμ ζητοῦντες τὸν Ἰησοῦν.)
-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그들이 그를 발견하자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εὐρόντες αὐτὸν πέραν τῆς θαλάσσης εἶπον αὐτῷ·)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ῥαββί, πότε ὧδε γέγονας.)
-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당신들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지 않습니다 (ζητεῖτέ με οὐχ ὅτι εἶδετε σημεῖα.)
오히려 그 빵을 먹고 만족하였기 때문입니다 (ἀλλ' ὅτι ἐφάγετε ἐκ τῶν ἄρτων καὶ ἐχορτάσθητε.)
- (27절) 당신들은 망해 사라져 버릴 음식을 예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남아 있는 음식을 예비하십시오.
(ἐργάζεσθε μὴ τὴν βρωσὴν τὴν ἀπολλυμένην ἀλλὰ τὴν βρωσὴν τὴν μένουσαν εἰς ζωὴν αἰώνιον.)
그것은 인자가 당신들에게 줄 것입니다 (ἦν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ὑμῖν δώσει·)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치셨습니다 (τοῦτον γὰρ ὁ πατήρ ἐσφράγισεν ὁ θεός.)
- (28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πρὸς αὐτόν·)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τί ποιῶμεν ἵνα ἐργαζώμεθα τὰ ἔργα τοῦ θεοῦ;)
-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ὁ]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τοῦτό ἐστιν τὸ ἔργον τοῦ θεοῦ),
그 결과 당신들은 그(하나님)가 보내신 그를 믿습니다 (ἵνα πιστεύητε εἰς ὃν ἀπέσταλεν ἐκεῖνος.)
- (30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αὐτῷ·)
우리들이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τί οὖν ποιεῖς σὺ σημεῖον, ἵνα ἴδωμεν καὶ πιστεύσωμέν σοι;)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τί ἐργάζῃ;)
- (31절)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οἱ πατέρες ἡμῶν τὸ μάννα ἔφαγον ἐν τῇ ἐρήμῳ.)
기록되었으되 (καθὼς ἐστιν γεγραμμένον·)
하늘로부터 온 빵을 먹도록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ἄρτο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φαγεῖν.)
- (32절)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하늘로부터 온 그 빵을 준 분은 모세가 아닙니다 (οὐ Μωϋσῆς δέδωκεν ὑμῖν τὸν ἄρτο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의 빵(그 진리, 그 빵)을 당신들에게 줍니다
(ἀλλ' ὁ πατήρ μου δίδωσιν ὑμῖν τὸν ἄρτο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τὸν ἀληθινόν·)
- (33절) 하나님의 그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ὁ γὰρ ἄρτος τοῦ θεοῦ ἐστιν ὁ καταβαίνω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ὶ ζωὴν διδοὺς τῷ κόσμῳ.)
- (34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πρὸς αὐτόν·)
주여! 그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κύριε, πάντοτε δός ἡμῖν τὸν ἄρτον τοῦτον.)
-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나는 생명의 빵입니다 (ἐγὼ εἰμι ὁ ἄρτος τῆς ζωῆς·)
나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ὁ ἐρχόμενος πρὸς ἐμὲ οὐ μὴ πεινάσῃ.)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καὶ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ὲ οὐ μὴ διψήσει πώποτε.)
- (36절)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λλ' εἶπον ὑμῖν)
당신들은 나를 보았고 믿지 않았습니까 (ὅτι καὶ ἐώρακατέ [με] καὶ οὐ πιστεύετ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애타게 찾던 유대인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 들 태세입니다. 바로 이 때 예수님은 먼저 선수를 치며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26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무엇을 뜻하며 왜 그들에게 그런 만나가 주어졌어야 했는지를 해석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만나 그 자체로 오셨으며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58절까지의 긴 문장 속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27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망해 사라져 버릴 음식을 예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남아 있는 음식을 예비하십시오. 그것은 인자가 당신들에게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번역한 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에르가제스데’ (ἐργάζεσθε)를 ‘일하다’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 동사 ‘에르가조마이’ (ἐργάζομαι)는 ‘일하다(work)’ 외에 ‘예비하다(prepare)’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 의미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만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시는데 아시다시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해서 얻은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 주신 것을 거두어 음식으로 준비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에르가제스데’는 ‘에르가조마이’의 2인칭 명령형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마침내는 썩어버릴 양식, 이 땅에서 소멸될 그런 양식을 준비하는데 온 힘을 쓰지 말고 영원토록 남아 있는 음식을 예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망해 사라져버릴 음식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우리들이 먹고 있는 밥, 국과 같은 음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얻어 먹을 것을 구하러 그곳에 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바로 그것을 ‘망해 사라질 음식’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자신들이 원하는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어지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영원히 남아 있는 음식은 예수님이 직접 주실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이 보증한’, ‘하나님이 증거한’ 생명의 음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더 확대 해석하면 영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치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더러 식인종이 되라는 게 아님이 분명하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당신의 생각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그 자체에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뭘 해야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린 질문이지요. 이것은 그들이 아직도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질문했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옳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지요?”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흔히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 이바지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참여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도 소극적 노력과 적극적 노력 두가지로 나눕니다. 소극적 노력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못된 모습이나 행동 등을 고치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적합하다고 하는 모델을 정해 놓고 그 모습으로 변해가려는 노력이지요. 그것을 소극적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달리 적극적 노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충성스럽게 일하거나 선교사로 열방 전도에 앞장서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것을 해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 시기, 질투, 분쟁 등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체의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21 절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¹⁹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²⁰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²¹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 5:19-21).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편지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쓴 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힘으로 신앙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옳무가 되어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과 대조하여 성령의 ‘열매’에 관해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간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간을 통해 이루어 내신 열매로 온전히 성령님의 것입니다. 인간들은 율법적 행위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삶이 조금 변하거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금방 우쭐해집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서 부족한 점을 발견하거나 옛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든지, 또는 교회 일보다는 생계에 매달려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이내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고 믿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생각하고 그것에 매달려 있나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오늘 내용을 가지고 자신을 향한 자신만의 메시지를 만들어 보십시오.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 6:22~36)

22.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5.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28.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0.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니 무엇이니이까
31.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원문해석하기

(22절) 다음날 (Τῆς ἐπαύριον)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들이 오직 한 척의 배만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ὁ ὄχλος ὁ ἑστηκὼς πέραν τῆς θαλάσσης εἶδον ὅτι πλοῖον ἄλλο οὐκ ἦν ἐκεῖ εἰ μὴ ἓν)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고 그의 제자들만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καὶ ὅτι οὐ συνεισῆλθεν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ὁ Ἰησοῦς εἰς τὸ πλοῖον ἀλλὰ μόνοι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ἀπῆλθον·)

(23절) 그러나 다른 배들이 예수님의 축사 후에 빵을 먹던 곳에서 가까운 티베리아로부터 왔습니다

(ἄλλα ἦλθεν πλοῖα ἐκ Τιβεριάδος ἐγγὺς τοῦ τόπου ὅπου ἔραγον τὸν ἄρτον εὐχαριστήσαντος τοῦ κυρίου.)

(24절) 무리들이 예수님도 없고 그의 제자들도 거기에 없음을 알았을 때

(ὅτε οὖν εἶδεν ὁ ὄχλος ὅτι Ἰησοῦς οὐκ ἔστιν ἐκεῖ οὐδὲ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작은 배들에 올라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ἐνέβησαν αὐτοὶ εἰς τὰ πλοιάρια καὶ ἦλθον εἰς Καφαρναούμ ζητοῦντες τὸν Ἰησοῦν.)
-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그들이 그를 발견하자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εὐρόντες αὐτὸν πέραν τῆς θαλάσσης εἶπον αὐτῷ·)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ῥαββί, πότε ᾧδε γέγονας.)
-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당신들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지 않습니다 (ζητεῖτέ με οὐχ ὅτι εἶδετε σημεῖα.)
오히려 그 빵을 먹고 만족하였기 때문입니다 (ἀλλ' ὅτι ἐφάγετε ἐκ τῶν ἄρτων καὶ ἐχορτάσθητε.)
- (27절) 당신들은 망해 사라져 버릴 음식을 예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남아 있는 음식을 예비하십시오.
(ἐργάζεσθε μὴ τὴν βρῶσιν τὴν ἀπολλυμένην ἀλλὰ τὴν βρῶσιν τὴν μένουσαν εἰς ζωὴν αἰώνιον.)
그것은 인자가 당신들에게 줄 것입니다 (ἦν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ὑμῖν δώσει·)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치셨습니다 (τοῦτον γὰρ ὁ πατήρ ἐσφράγισεν ὁ θεός.)
- (28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πρὸς αὐτόν·)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τί ποιῶμεν ἵνα ἐργαζώμεθα τὰ ἔργα τοῦ θεοῦ;)
-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ὁ]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τοῦτό ἐστιν τὸ ἔργον τοῦ θεοῦ),
그 결과 당신들은 그(하나님)가 보내신 그를 믿습니다 (ἵνα πιστεύητε εἰς ὃν ἀπέσταλεν ἐκεῖνος.)
- (30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αὐτῷ·)
우리들이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τί οὖν ποιεῖς σὺ σημεῖον, ἵνα ἴδωμεν καὶ πιστεύσωμέν σοι;)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τί ἐργάζῃ;)
- (31절)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οἱ πατέρες ἡμῶν τὸ μάννα ἔφαγον ἐν τῇ ἐρήμῳ.)
기록되었으되 (καθὼς ἐστιν γεγραμμένον·)
하늘로부터 온 빵을 먹도록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ἄρτο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φαγεῖν.)
- (32절)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하늘로부터 온 그 빵을 준 분은 모세가 아닙니다 (οὐ Μωϋσῆς δέδωκεν ὑμῖν τὸν ἄρτο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의 빵(그 진리, 그 빵)을 당신들에게 줍니다
(ἀλλ' ὁ πατήρ μου δίδωσιν ὑμῖν τὸν ἄρτο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τὸν ἀληθινόν·)
- (33절) 하나님의 그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ὁ γὰρ ἄρτος τοῦ θεοῦ ἐστιν ὁ καταβαίνω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ὶ ζωὴν διδοὺς τῷ κόσμῳ.)
- (34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πρὸς αὐτόν·)
주여! 그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κύριε, πάντοτε δός ἡμῖν τὸν ἄρτον τοῦτον.)
-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나는 생명의 빵입니다 (ἐγὼ εἰμι ὁ ἄρτος τῆς ζωῆς·)
나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ὁ ἐρχόμενος πρὸς ἐμὲ οὐ μὴ πεινάσῃ.)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καὶ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ὲ οὐ μὴ διψήσει πώποτε.)
- (36절)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λλ' εἶπον ὑμῖν)
당신들은 나를 보았고 믿지 않았습니까 (ὅτι καὶ ἐώρακατέ [με] καὶ οὐ πιστεύετ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9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합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알듯 모를듯 모호한 말로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결과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예수님)를 믿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헬라어에서 ‘히나’ (ἵνα)가 이끄는 절을 직접 주격이나 목적격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자체가 행위의 목적(대상이 아니라)이나 결과로 해석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구절을 주격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아마도 앞의 문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지칭하는 것이 ‘당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맞춰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문의 내용보다는 지나치게 국어 문법이나 영어 문법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생겨난 문제입니다. 헬라어 문법에서는 앞에서 직역한 그대로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로 만약 한글 성경의 해석대로 한다면 믿음의 주체가 인간이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특정인을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은 A라는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고 그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A가 끝내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역은 A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A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는데 단지 A라는 사람의 의지 하나 꺾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 굴복당해서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A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은 A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믿도록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인간들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지요.

위의 두 가지 논증을 토대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은밀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그 분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껏 내가 살아온 삶이 예수님 안에서 해석되기 시작하면 그 때 비로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나의 내면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네!”라는 외마디 외침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가 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그가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고, 그가 왜 부활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안식이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진정한 믿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믿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정말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와 안식이 있나요? 당신의 신앙을 솔직하게 돌아 보기 바랍니다.

30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은 선문답같은 예수님의 대답을 약간은 알아들은 듯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들이 뭔가를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무슨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믿을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표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질문의 초점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일로 모아집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

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은 인간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니 이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자신들을 위해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면 이들은 이제야 좀 제대로 말씀을 이해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의 의미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 말입니다. “예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거가 뭐죠? 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나요? 나의 구원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셨으며 또 지금 제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 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구원이라는 놀라운 신비, 그 실제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서 이 질문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31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은 갑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만나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그 만나가 하나님이 나누어 준 먹을 음식의 증거, 곧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점점 더 핵심을 향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망해 사라져 버릴 음식을 예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남아 있는 음식을 예비하십시오. 그것은 인자가 당신들에게 줄 것입니다” (27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인간들의 노력으로 거둔 양식이 아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 주신 그 만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옛날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은 만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해 낸 성경 말씀인 출애굽기 16장 4절을 찾아 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 16:4).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나온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이 모두 떨어지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불평을 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유)이 아주 의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나의 율법(토라) 안에서 걷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מִן־כִּי־יִשְׁמְרוּ אֶת־חֻמֹּתַי וְיִשְׁמְרוּ אֶת־מִצְוֹתַי וְיִשְׁמְרוּ אֶת־כְּלֵי־חֻמֹּתַי וְיִשְׁמְרוּ אֶת־מִצְוֹתַי)라고 아예 그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한 지 18일 뒤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내려 옵니다. 그 이후 만나를 사십 년을 한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율법이 광야 생활 내내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들이 율법 안에서 걷든 걷지 않든 한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여호수아(예수)에 의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날 그쳤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하나님은 단 한번도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만나가 그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⁴⁰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십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¹¹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¹²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수 5:10-12).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가나안의 소산을 먹기까지만 유효했던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에게 주어질 궁극의 양식은 가나안의 소산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가나안의 소산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내가 생명의 빵입니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 6:22~36)

22.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5.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28.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0.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니 무엇이니이까
31.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원문해석하기

(22절) 다음날 (Τῆς ἐπαύριον)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들이 오직 한 척의 배만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ὁ ὄχλος ὁ ἑστηκὼς πέραν τῆς θαλάσσης εἶδον ὅτι πλοῖον ἄλλο οὐκ ἦν ἐκεῖ εἰ μὴ ἓν)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고 그의 제자들만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καὶ ὅτι οὐ συνεισῆλθεν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ὁ Ἰησοῦς εἰς τὸ πλοῖον ἀλλὰ μόνοι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ἀπῆλθον·)

(23절) 그러나 다른 배들이 예수님의 축사 후에 빵을 먹던 곳에서 가까운 티베리아로부터 왔습니다

(ἄλλα ἦλθεν πλοῖα ἐκ Τιβεριάδος ἐγγὺς τοῦ τόπου ὅπου ἔραγον τὸν ἄρτον εὐχαριστήσαντος τοῦ κυρίου.)

(24절) 무리들이 예수님도 없고 그의 제자들도 거기에 없음을 알았을 때

(ὅτε οὖν εἶδεν ὁ ὄχλος ὅτι Ἰησοῦς οὐκ ἔστιν ἐκεῖ οὐδὲ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작은 배들에 올라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ἐνέβησαν αὐτοὶ εἰς τὰ πλοιάρια καὶ ἦλθον εἰς Καφαρναοὺμ ζητοῦντες τὸν Ἰησοῦν.)
-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그들이 그를 발견하자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εὐρόντες αὐτὸν πέραν τῆς θαλάσσης εἶπον αὐτῷ·)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ῥαββί, πότε ὦδε γέγονας.)
-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당신들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지 않습니다 (ζητεῖτέ με οὐχ ὅτι εἶδετε σημεῖα)
오히려 그 빵을 먹고 만족하였기 때문입니다 (ἀλλ' ὅτι ἐφάγετε ἐκ τῶν ἄρτων καὶ ἐχορτάσθητε.)
- (27절) 당신들은 망해 사라져 버릴 음식을 예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남아 있는 음식을 예비하십시오.
(ἐργάζεσθε μὴ τὴν βρωσὴν τὴν ἀπολλυμένην ἀλλὰ τὴν βρωσὴν τὴν μένουσαν εἰς ζωὴν αἰώνιον.)
그것은 인자가 당신들에게 줄 것입니다 (ἦν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ὑμῖν δώσει·)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치셨습니다 (τοῦτον γὰρ ὁ πατήρ ἐσφράγισεν ὁ θεός·)
- (28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πρὸς αὐτόν·)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τί ποιῶμεν ἵνα ἐργαζώμεθα τὰ ἔργα τοῦ θεοῦ;)
-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ὁ]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τοῦτό ἐστιν τὸ ἔργον τοῦ θεοῦ),
그 결과 당신들은 그(하나님)가 보내신 그를 믿습니다 (ἵνα πιστεύητε εἰς ὃν ἀπέσταλεν ἐκεῖνος.)
- (30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αὐτῷ·)
우리들이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τί οὖν ποιεῖς σὺ σημεῖον, ἵνα ἴδωμεν καὶ πιστεύσωμέν σοι;)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τί ἐργάζῃ;)
- (31절)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οἱ πατέρες ἡμῶν τὸ μάννα ἔφαγον ἐν τῇ ἐρήμῳ,
기록되었으되 (καθὼς ἐστιν γεγραμμένον·)
하늘로부터 온 빵을 먹도록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ἄρτο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φαγεῖν.)
- (32절)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하늘로부터 온 그 빵을 준 분은 모세가 아닙니다 (οὐ Μωϋσῆς δέδωκεν ὑμῖν τὸν ἄρτο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의 빵(그 진리, 그 빵)을 당신들에게 줍니다
(ἀλλ' ὁ πατήρ μου δίδωσιν ὑμῖν τὸν ἄρτο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τὸν ἀληθινόν·)
- (33절) 하나님의 그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ὁ γὰρ ἄρτος τοῦ θεοῦ ἐστιν ὁ καταβαίνω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ὶ ζωὴν διδούς τῷ κόσμῳ.)
- (34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πρὸς αὐτόν·)
주여! 그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κύριε, πάντοτε δός ἡμῖν τὸν ἄρτον τοῦτον.)
-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나는 생명의 빵입니다 (ἐγὼ εἰμι ὁ ἄρτος τῆς ζωῆς·)
나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ὁ ἐρχόμενος πρὸς ἐμὲ οὐ μὴ πεινάσῃ),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καὶ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ὲ οὐ μὴ διψήσει πώποτε.)
- (36절)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λλ' εἶπον ὑμῖν)
당신들은 나를 보았고 믿지 않았습니까 (ὅτι καὶ ἐώρακατέ [με] καὶ οὐ πιστεύετ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2~33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이 지난 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에 대해 언급하자 예수님이 그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온 그 빵을 준 분은 모세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의 빵(그진리, 그 빵)을 당신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신 빵은 만나를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온 빵을 만나로 이해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쓰인 동사의 시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여기 쓰인 주다(give)라는 동사는 현재 완료형(δέδοκεν 데도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는 행위가 과거에 이미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명의 떡이 주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그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의 소산을 먹자 이내 그쳐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한 빵이 단순히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닌 과거 행위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32절 하반절에 나온 ‘주다’ 동사를 살펴보면 여기서의 시제는 현재형(δίδωσιν 디도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빵이 시간적으로 한번도 끊긴 적이 없이 현재까지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33절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명확해 집니다. “하나님의 그 빵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빵”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그 빵은 ‘현재’ 하늘로부터 내려 오고 있고 ‘현재’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 빵은 창세 전부터 존재해 왔고 그로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으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그 빵을 먹어 왔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빵을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빵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32절에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 ‘그 빵’을 ‘그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τὸν ἄρτον 톤 아르톤... τὸν ἀληθινόν 톤 알레디논). 한글 성경은 ‘진리의 빵’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진리가 빵을 수식한다기 보다는 동격으로 ‘그 빵, 바로 그 진리’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즉, 하늘로부터 오는 빵을 주는데 ‘그 빵’이 바로 ‘그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알레데이아)에 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살펴 보았고 그 진리가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하나님의 그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바로 지금 생명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한다는 것은 늘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가 주시는 생명의 빵을 공급받고 사는 것이지요. 그 빵은 우리의 기분이나 영적 상태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생명의 빵이 끊길 것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 이후 한번도 그 진리, 그 빵을 공급하시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신 동안뿐 아니라 오늘날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빵’이요 ‘그 진리’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34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그 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 말은 예수님이 곧 그 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거나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진리 그 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빵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빵을 달라고 조릅니다. 그 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 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은 이후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빵’임을 밝혔을 때 나타난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그 빵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들의 기대는 무너지고 실망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고 따랐던 제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35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입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늘로부터 온 그 빵’을 달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입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나는 ~입니다”(I am~) 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표현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즉, ‘에고 에이미 (ἐγώ εἰμι)’는 하나님의 자기 설명 방식이었던 것이지요. 요한복음에는 이 에고 에이미 (ἐγώ εἰμι)가 특히 많이 쓰였는데, 모두가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설은 총 7회에 걸쳐 사용되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나를 믿는 자는 언제든지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후 만나 사건이 있고 바로 뒤이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 다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목이 말라 물을 찾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출17:1~7 참조).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물을 낸 반석을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만나 사건과 함께 트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나온 생수 사건을 동시에 사용하여 자신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36절을 읽으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바로 하루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수군대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늘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어요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6:37~46)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38.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1.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리려
42.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4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6.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원문해석하기

-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두가 나에게 올 것입니다 (πάν ὃ δίδωσίν μοι ὁ πατήρ πρὸς ἐμὲ ἦξει)
그리고 나는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아무도 밖으로 내어 쫓지 않을 것입니다
(καὶ τὸν ἐρχόμενον πρὸς ἐμὲ οὐ μὴ ἐκβάλω ἔξω.)
- (38절)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ὅτι καταβέβηκα ἀπὸ τοῦ οὐρανοῦ οὐχ ἵνα ποιῶ τὸ θέλημα τὸ ἐμὸν)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ἀλλὰ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 (39절) 이것이나를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τοῦτο δέ ἐστιν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그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ἵνα πᾶν ὃ δέδοκέν μοι μὴ ἀπολέσω ἔξ αὐτοῦ.)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ἀλλὰ ἀναστήσω αὐτὸ [ἐν] τῇ ἐσχάτῃ ἡμέρᾳ.)
- (40절)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τοῦτο γὰρ ἐστιν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ατρός μου.)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들 모두가 영생을 갖는 것입니다
(ἵνα πᾶς ὁ θεωρῶν τὸν υἱὸν καὶ πιστεύων εἰς αὐτὸν ἔχη ζωὴν αἰώνιον.)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킬 것입니다 (καὶ ἀναστήσω αὐτὸν ἐγὼ [ἐν] τῇ ἐσχάτῃ ἡμέρᾳ.)
- (41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에 대하여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Ἐγόγγυζ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περὶ αὐτοῦ)
그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ὅτι εἶπεν· ἐγὼ εἰμι ὁ ἄρτος ὁ καταβάς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 (42절) 그들이 말했습니다(καὶ ἔλεγον·)
 그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도 알고 그의 어머니도 알지 않느냐?
 (οὐχ οὗτός ἐστιν Ἰησοῦς ὁ υἱὸς Ἰωσήφ, οὗ ἡμεῖς οἴδαμεν τὸν πατέρα καὶ τὴν μητέρα·)
 어떻게 그가 지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을 하는가?
 (πῶς νῦν λέγει ὅτι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ταβέβηκα·)
-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서로서로 투덜대지 마십시오(μὴ γογγύζετε μετ’ ἀλλήλων·)
- (44절) 어느 누구도 나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οὐδεὶς δύναται ἐλθεῖν πρὸς με)
 만약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지 않는다면(εἰ μὴ ὁ πατὴρ ὁ πέμψας με ἐλκύσῃ αὐτόν·)
 그리고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입니다(καὶ γὰρ ἀναστήσω αὐτὸν ἐν τῇ ἐσχάτῃ ἡμέρᾳ·)
- (45절) 이것은 선지서들에 기록된 것입니다(ἔστιν γεγραμμένον ἐν τοῖς προφήταις·)
 모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καὶ ἔσονται πάντες διδασκῆται θεοῦ·)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옵니다
 (πᾶς ὁ ἀκούσας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καὶ μαθὼν ἔρχεται πρὸς ἐμέ·)
- (46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οὐχ ὅτι τὸν πατέρα εἶδρακεν τις εἰ μὴ ὁ ὢν παρὰ τοῦ θεοῦ·)
 그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οὗτος εἶδρακεν τὸν πατέρα·)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7~40은 요한복음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속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해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바로 이 구절은 그 범위가 모든 인류가 아니라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한정된다는 제한된 구속(Limited Atonement)을 주장하는 켈빈주의의 근거가 되는 구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금도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예정론’이라는 거대한 논제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7~38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두가 나에게 올 것입니다”라고 선언하시고 자신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모두 받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실 때 선별 기준이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정하는 주체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시는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각기 첨예하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켈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구원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한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다른 한 쪽(알메니안 주의)은 예정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들 중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될지를 미리 아실 수 있으며 그것을 토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만 골라서 그들을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만 골라서 예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은 행위의 결과인 셈이지요.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있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러한 예정론은 자칫 사변적인 논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아들로 택하신 분도 하나님(성부)이시고 나의 결격 사유를 해소해 주신 분도 하나님(성자)이시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실상에 관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모두가 죽은 자였다고 하셨으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려 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5:24).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정확히 이해한다면 앞의 논쟁은 별 의미가 없는 논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 즉,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두가 나에게 올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실 것이며 약속대로 정확히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야 만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또 다른 신학적 논쟁이 야기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느냐 아니면 구원받을 일부의 사람들만을 위해 죽으셨느냐입니다. 이 논쟁도 켈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한 논쟁거리입니다. 흔히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런데 당신이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고 못받는 귀책사유가 인간에게 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는데 인간이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모순이 있습니다. 만약 이 말대로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 결과 모든 인류의 죄가 대속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100% 효력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이 달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도 그 성공률이 극히 낮다면 그것은 실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토대로 본다면 켈빈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의 피는 한 방울도 헛되이 버려지지 않고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는 100% 구원하신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많은 것은 결국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는 결론이 성립됩니다. 그것이 켈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제한된 구속(Limited Atonement)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잃어버린자(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세상으로 들어 오셨고 잃어버린 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둘 중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것은 일반성도의 몫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성경학자들이 씨름하도록 그분들의 책상 위에 올려두기로 하고 우리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는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신 자에 속했는지,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이 확실하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 다음 단계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를 택하셨고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자인

가?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자인가? 등의 질문 말이지요.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어떠한 자격 요건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판단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적어도 커트라인을 통과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어쩌면 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설명한 사람 중 전자는 세리나 창녀이고 후자는 바리새인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자신이 얼마나 자격없고 초라한 존재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견고하다면 당신은 구원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 매우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내가 구원받을 자가 확실하다면 태초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하나 하나 실행하고 계셨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없이 100% 성공했다는 점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론이니 만인구원론이니 하는 신학적 논쟁에서 벗어나 개인적으로 건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